



칼빈 신학의 인문주의적 방법론에 대한 고찰

오형국

<목차>

I. 서론

1. 연구 목적과 방법
2.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상관성

[1 부]

II, 인문주의 조류 속의 칼뱅

1. 인문주의의 개념과 성격
2. 16세기 프랑스 인문주의와 칼뱅

III. 칼뱅 신학 속의 인문주의

1. 칼뱅 신학의 구조(교의)적 특성
 - 1) 두 지식론 - 인간론과 신론의 상호성,
 - 2) 일반은총론 -이교세계 속의 가치인정
2. 칼뱅 신학의 언어(수사학)적 특성
 - 1) 기독교 사상에서 수사학의 전통 : 어거스틴, 에라스무스
 - 2) <기독교 강요>와 성경주석에 나타난 수사학적 요소

IV. 신학과 인문주의와 교육

I. 서론

현재 우리의 칼빈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칼빈 사상의 역동성을 어떻게 하면 재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칼빈 사상의 역동성의 원천은 신학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에서 지적된다. 하나님 주권사상과 성령의 조명 교리에서 기인하는 신학적 역동성은 칼빈주의가 개신교의 가장 주도적인 신학전통과 교회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였다. 또한 두 지식론과 일반은총론에 반영되고 있는 인문주의적 성향에 기인하는 문화적 상관성이 칼빈사상을 근대 서구의 정치 경제 학문과 교육의 원천이 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왜 칼빈주의 전통의 교회는 오늘날 16세기의 역동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까? 칼빈 연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칼빈연구의 접근 방법에 재고의 여지가 있다. 칼빈의 경건과 신학의 결과적 성취를 이해하는 작업에 비하여 칼빈 신학의 방법론적 차원(교의적 내용과 상대되는)과 형성원리, 역사적 적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칼빈 사상에 대한 역사적 방법의 연구이며, 이것은 신학 이외의 지성사적 맥락을 주목하는 것이다. 칼빈 시대의 주된 지적 맥락은 인문주의 사조였으므로 칼빈 신학의 구성상의 특성을(교육적 배경만으로서가 아니라) 인문주의 사조의와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는 것은 그의 사상의 역동성을 현대의 문화 속에서 재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이 단지 신학과 교회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그 시대의 학문과 사회 영역 전반에 관계된 운동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종교개혁에 대한 문화사적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역사 속의 종교에는 영적, 신학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¹⁾ 이 두 차원 중 어느 하나도 다른 것으로 환원되어 해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학적 이해와 문화적 이해 중 어느 편에 주안점을 두든지 간에 두 차원의 관계구조를 통찰하는 안목이다. 이것이 종교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목적, 즉 종교가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이나 문화적 조건에 의한 종교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과 전제하에서 본고는 갈뱅 연구에서 종종 간과되었던 신학과 인문주의의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한다.²⁾

1-1. 관심과 목적

갈뱅은 종교개혁의 신학적 체계를 수립하고 개혁운동을 국제화시킴으로써 서구 개신교를 확고한 토대 위에 올려놓은 인물이다. 그의 작업은 단순히 신학적 차원이나 교회적인 차원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사상은 근대 자본주의의 노동윤리와 민주적 개인주의 발달의 토대가 되었으며, 종교와 학문 및 교육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제공하며 서구의 근대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었다.³⁾ 그렇다면 제네바의 교회개혁에서 형성된 갈뱅의 신학이 갈뱅주의라는 신앙전통을 성립시키면서 역동적인 문화이념으로서 작용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은 무엇인가? 본고는 그 주요한 원인을 그가 자신의 독특한 신본주의적 경건에 기초한 신학적 개념들을 동시대의 학문과 문화요소와 깊이 융합시켜서 표현할 수 있었다는 데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당대의 가장 중요한 지적 운동이며 새로운 문화창출의 동인이었던 인문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그의 사상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갈뱅 신학의 형성과정과 특징적인 개념들, 그리고 종교개혁의 중요한 실제적 국면인 교육적 실천의 내용을 역사적인 방법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갈뱅 사상의 특성 : 교회와 사회를 아우르는 문화적 상관성)

갈뱅은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동시에 가장 독특한 개신교 신학자로 간주된다.⁴⁾ 이는 그의 신학이 갖는 사상적 구조와 그가 성취한 과업에 있어서 공히 지적될 수 있다. 그의 신학은 “전적 타락” 또는 “예정론”과 같이 자율적인 인간성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 비타협적인 신본주의의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두 지식론”과 “일반은총론”에서와 같이 인간과 창조세계의 가치를 세속영역에서까지 발견하고자 하는 긍정적 개방성을 뚜렷이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학은 1차적으로는 영혼의 구원과 경건한 교회공동체를 성립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당대와 이후의 사회사상의 원천이 될 수 있었다. 제네바에서의 그의 사역(ministry) 역시 교회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실천이며 이후의 역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갈뱅에 의하여 성립된 교회와 그 속에서 형성되는 그리스도인은 여타의 신앙전통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⁵⁾

1) Christopher Dawson, *Historic Reality of Christian Culture*, <기독교 문화와 현대문명>

홍치모 역(서울, 성광문화사, 1976) p.6.

2) 갈뱅의 인문주의적 배경은 전적으로 간과되지는 않았으나, 초기 교육배경으로서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3) Serene Jones, *Calvin and the Rhetoric of Piety*, p.1; Pettegree, *Clavinism in Europe 1540-1620*, Cambridge, 1996) _

4) 이러한 갈뱅의 특징은 Philip Aries가 “새로운 신학적 입장은 오직 그 시대의 일반감각과 약간 다를 뿐 아니라 또한 대단히 밀접한 경우에만 수립될 수 있다”고 언명한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The Hour of Death*, Bouwsma, 19, n.22 재인용.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지식을 결부시킨 기독교 강요의 전제는 쾰빙글리로부터 채택한 것이다. K.Barth, *The Theology of John Calvin*, p.162.

5) 이오갑, “갈뱅의 세계관”, <기독교 언어문화논집>,

(국제기독교언어문화연구원 Vol.1, no.1, 1997)

갈뱅의 개혁으로 형성된 교회는 과거 로마 가톨릭교회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갖는다. 그 교회는 매우 민주적이면서도 성직자의 지도와 훈련을 잘 수용하는 평신도들로 이루어진다. 갈뱅의 교회들은 합의된 계약에 근거한 제도적 교회이다. 갈뱅의 교회는 지침과 신앙고백서를 바탕으로 한다. 모든 신자들은 목



그는 1차적으로 교회의 사람이었다. 멜란히톤이 그 신학자(the theologian)라고 부른 바와 같이⁶⁾ 그는 <기독교 강요>를 저술함으로써 개혁교회가 추구할 신앙의 방향을 선도한 신학자이었으며, 일상의 직무는 제네바 교회의 설교자이며 목회자였다. 논쟁가와 치리자의 이미지가 강한 일면도 있지만 그것도 역시 모두 교회의 직무 속에서 행해진 일이었다. 그는 평생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⁷⁾

그러나 칼뱅은 제네바 도시의 사회적 상황을 변혁시키고 서구의 근대를 형성한 인물이다. 칼뱅은 그 도시에서 세계 최초로 의무교육을 실시했고, 제네바 대학의 전신인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시민종합병원을 세워서 치료와 구호를 겸하게 했고, 고리대금업을 종식시켰고, 자본가들과 오랜 협상과 투쟁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대출자금에 대한 금리를 제한했다. 많은 수가 중소상공업자들이었던 망명자들의 정착과 자활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의 저렴한 대출금리는 제네바에 많은 중소기업들과 상업체들이 들어서게 했다. 퇴폐와 향락의 풍조를 몰아내고 시민들의 삶을 선하고 건강하게 재조직했다. 실제로 칼뱅은 제네바에서 시민들의 삶과 제도를 일신했고 크게는 스위스, 그리고 그의 영향권 속의 다른 도시들과 국가들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것은 종교를 통한 사회의 변화라는 명제에 관심 갖는 사람들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역사적 교훈을 갖는다.

이처럼 칼뱅의 신학과 이후의 칼뱅주의가 역사 속에서 교회와 사회를 어우르는 강력한 문화이념으로서 작용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은 그가 자신의 신학을 구성함에 있어서 동시대의 학문과 문화요소를 깊이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칼뱅에 대한 새로운 조명은 그를 당대 문화의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간주하며, 동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적 운동이며 문화창출의 주요 동인이었던 인문주의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행해지는 것이 타당하다. 칼뱅을 이같은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목적은 16세기의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신앙전통을 이루는 칼뱅 사상의 본질을 인문주의의 관점에서 배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칼뱅의 신학과 인문주의의 관계성을 조명함으로써 경건의 지식을 추구하는 신학적 이념이 당대의 문화와 결합하는 방식에 대한 통찰을 구하기 위함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학문의 어머니(mother of learning)" 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종교적 역동성과 문화적 형성력(cultural force)을 아울러 갖는 칼뱅의 신학과 이후의 칼뱅주의 사상의 원천에 대한 탐구는 역사적 접근보다는 주로 신학적 접근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주로 칼뱅 신학의 중심교리를 찾아보려는 시도가 행해졌다. E. 트뤼치를 비롯하여 많은 이들은 예정론을 칼뱅 신학의 중심교리로 보았으며, W. 니젤 등은 기독교론을, 그리고 B.B. 워필드 등은 성령의 내적 조명 교리에 주목하며 칼뱅을 성령의 신학자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칼뱅 신학을 특정한 중심교리를 초점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에 회의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⁸⁾

그렇다면, 칼뱅 신학이 갖는 특성의 원천을 중심교리 외에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종교적 사상의 특성은 교의적 측면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학이나 종교사상의 특질은 그 사람이 속한 종교적, 문화적 전통이나 개인적 체험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며,⁹⁾ 사상의 체계화 과정에서 의

사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서명했다. 그 교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천했고, 모든 대표자들을 선거로서 선출했다. 칼뱅주의 신도들은 구체적으로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불어권 개혁도시들의 개혁자들과 위그노라고 불렀던 프랑스의 개혁교도들, 네덜란드의 이른바 반란자들(guile gueux),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이다. 그들은 모두 절대 권력자들의 권위와 횡포에 도전했고 싸웠고, 패배했을 때도 그들은 극심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신앙과 양심을 끝까지 지켰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6) 베자 53 (T.H. Parker, John Calvin in G.E. Duffield)

7) 이오갑, "칼뱅의 세계관", <기독교 언어문화논집>, (국제기독교언어문화연구원 Vol.1,no.1,1997)

8) (김재성, Partee, 이양호, 48-57)



거하는 인접학문의 인식론과 방법론, 또는 동 시대의 정신적 태도(mentality)와 문화적 경향 등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본고는 인문주의를 특정한 철학적 신조로서보다는 학문의 방법론적 사고 및 정신적 태도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칼뱅의 신학적 사고에 끼친 영향을 그의 사상과 교육적 실천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선, 본고는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운동은 종교적 교의의 개혁만이 아니라 종교와 사회 전체의 개혁을 결과한 문화사적 사건이었다는 이해를 기초로 하여 인문주의를 칼뱅의 신학의 문화적 조건으로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16세기가 르네상스의 지적 사회적 변동의 연장선 상에 서 있었던 시대였다는 사실과, 세속화 즉 종교와 문화의 분리를 경험한 현대와 얼마나 다른 시대였는가를 상기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기독교 강요>로 대표되는 칼뱅의 신학사상은 개신교의 교의신학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재정의된 기독교 신앙을 삶의 전 영역에 적용시키는 고도의 문화상관성을 가진 신학이념이었다는 점에 있음을 조명하고자 한다.

둘째, 칼뱅의 종교개혁작업은 강한 교육적 차원을 수반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루터에게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발발 동기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믿을 것인가”라는 신앙의 영적 차원에 있었고, 제네바에서도 개혁교회를 성립시키는 단계에서 주된 논제는 기본적으로 교의신학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칼뱅의 저술 가운데서도 교육사상이 이론적 형태를 가지고 제시된 것은 없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발발 동기와 목적자체가 신학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가능케 하는 실제적 과정은 교육적 과정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칼뱅의 제네바 사역에서도 그의 관심과 사역의 내용은 다름아닌 제네바 시민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고, 종교개혁의 신앙과 사상을 체득한 목회자와 공직자를 육성해 내는 데 사활을 걸었던 것이다. 칼뱅의 제네바 종교개혁이 1차적으로 신학적이며 정치적 차원의 과업이었다면 그의 모든 분투는 교육적 작업에 의하여서만 지속적인 진행이 가능했고 최종적인 성취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다.

(역사적 연구 방법에 관하여)

연구 방법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칼뱅 연구는 그의 사상의 특징을 교의적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연구가 상당 기간 지배적이었고 역사적 연구는 희소하였다. 문화적 전기를 쓴 W. 바우스마가 지적한 바와 같이 칼뱅은 역사가들의 진지한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일반 역사가들은 그를 시대의 아들, 즉 역사적 인물로 묘사하는 데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그를 신학자들 또는 칼뱅 전문가들에게 남겨두어 왔다. 그 이유는 복잡적이지만 우선 역사가들이 학문, 예술, 종교 등 문화사 영역의 주요 인물과 씨름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지적 예술적 종교적 비범성은 역사적 과정과 분리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후대에 갈수록 칼뱅과 칼뱅주의는 역사와 유리된 관념으로서 이해되었고 역사과정 속에서 문화를 변혁하는 이념과 운동으로 재창출되지 못하고 교회 내부의 신학적 기념비(monument)노릇을 하는데 머물곤 하였다. 19세기 이래의 세속화 과정 속에서 종교와 문화의 분리가 진행되면서 칼뱅주의 전통을 표방하는 신앙공동체들에서조차도 칼뱅의 사상은 좁은 의미의 경건이나 교리적 주장으로 축소되곤 하였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고백의 요체인 역사의 주재자로서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섭리에 순명하는 기독교의 실존을 낳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었다.

반면에, 칼뱅 신학의 대표적 교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주권사상(God's sovereignty)은 성서의 하나님이 철저히 역사의 주재자이심을 고백하는 동시에,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가 인간의 종교적 영역만이 아니라 학문과 교육, 정치와 경제, 예술 등 인간문화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기독교의 진리는 종교의 영역이나 교회라는 삶의 자리로써만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9) 신비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실천적이고 공동체적인 성향의 경건이 있으며, 감성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성향과 사변적이며 주지주의로 나아가는 성향 등이 있다.



다.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다면 칼뱅주의를 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적 칼뱅주의는 퓨리티니즘으로 이어지면서 막스 베버 등이 논구한 바와 같이 근대 서구의 자본주의 윤리, 양심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의 이념과 고등교육 분야에서 강한 문화상관성을 나타내며 이러한 이념을 현실화한 자취를 남기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므로 칼뱅 사상의 실제적 의미를 파악하고 오늘날의 적용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접근방법에 의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칼뱅의 저술과 실천 양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와 제네바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당시의 인문주의의 의미와 역사적 기능을 칼뱅 사상의 지적 배경으로서 고찰하는 한편, <기독교 강요>를 구성하는 신학적 언어와 제네바 아카데미의 이념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인문주의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인문주의는 너무나 다양한 양상을 갖고 있으므로 인문주의 자체를 이해하는데도 방법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종래의 사상사적인 방법으로써 인문주의자라고 불린 작가들의 저술을 명제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인문주의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¹⁰⁾ 그보다는 그것의 모태인 르네상스 문화의 세계관과 내적 성향을 이해하는 가운데, 종교개혁 과정에서 인문주의 학문과 정신적 자세(mentality) 및 사고방식이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확인할 때 그 실제적 본질을 볼 수 있다. 종교개혁이 진행되어 갈수록 개혁자들과 인문주의자들은 개인적인 교육의 경험과 학문적 방법론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관계에서 보듯이 신학적 입장에서는 분명히 구별되는 집단이었다. 따라서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의 한 사람인 칼빈에 관하여 인문주의는 단순히 그의 초기 형성과정 또는 교육적 배경 정도였으며 회심 이후에는 결별한 것으로 간주되곤 하였다. 그러나 칼뱅의 종교개혁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저술의 체계와 언어의 특성은 인문주의와의 관련 속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 르네상스의 전성기였던 16세기 초반 칼뱅 시대의 문화적 성격과 그의 교육적 배경에서 인문주의 학문은 지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사상의 독특성이 주로 종교와 교육, 정치와의 관계, 그리고 신학과 타학문 요소의 관계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인문주의는 단순히 그의 주된 저작과 실천을 이끌어간 시대배경으로만 간주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칼뱅의 신학과 교육사상 속에서 인문주의의 학문과 정신적 태도(mentality)가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양자의 결합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고찰하는 것은 칼뱅 사상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위하여 긴요한 과제이다.

본고는 서론과 1, 2부로 구성되었는데, 서론적 고찰로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서술에 이어, 인문주의 사조와 개혁자 칼뱅이 속한 역사적 맥락이라고 할 르네상스 문화와 종교개혁의 상관관계를 르네상스의 종교성을 중심으로 일별하였다.

1부에서는 인문주의 정신의 제요소와 경향들을 고찰한다. 르네상스 시기의 인문주의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방대한 연구주제며 지금까지도 인문주의의 정의에 대하여는 학계에서 완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이에 관하여 완벽한 해설을 제시하지는 않으나 인문주의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이 인문주의자 칼뱅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문주의의 실제적 본질을 사상적 기능에 중점을 두어 밝히고자 하였다.

여기서 주요 논점은 당시의 인문주의는 단순히 고전고대에 관한 고증학적 지식의 축적이나 르네상스의 세속주의적 측면을 반영하는 인본주의 철학이 아니라 서구의 수사학 전통에 기반을 둔 그 시대의 새로운 학문이었으며 교육적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이다. 인문주의의 실제적 속성은 인문주의자들이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문주의의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정신이 동시대의 다른 전통이나 문화적 힘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했는가를 이해함으로써 올바르게 파악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게 볼

10) 박준철,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의 관계- 멜란히톤의 비텐베르크 대학 커리큘럼 개편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995)



때, 인문주의의 사상적 기능은 자체의 이념과 신조적 사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담아내는 지적 용해제(intellectual solvent) 또는 수레(carrier)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 될 수 있다. 이후에도 인문주의를 종교개혁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는 명제적 요소에 치중하는 인습적 사상사의 지적 기원의 탐구방식보다는 문화적 기원의 접근 방식이 적절하리라고 판단된다.¹¹⁾

다음으로는 당대의 프랑스 르네상스의 조류 속에서의 깔뱅의 모습을 고찰한다. 전유립적인 현상이었으며, 특히 이탈리아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으며 전개된 프랑스의 르네상스 문화가 깔뱅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피기 위하여 프랑스 르네상스의 전후과정을 깔뱅의 교육적 배경과 관련하여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깔뱅의 신학적 특징을 살피며 그 속에 포함되고 작용하는 인문주의적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주저인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깔뱅 신학의 구조적 특징을 “전적 타락“, “하나님 절대 주권“과 “예정론“, “두 지식론“, “일반은총론“ 등 그의 교의체계의 구성요소들을 통하여 살핀다. 깔뱅 신학의 특징인 신인식(또는 계시관)에서 “두 지식론”은 신적 차원과 인간적 차원 또는 초월과 역사를 통전하려는 현대 신학의 선구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연후에 <기독교 강요>의 언어적 특성을 수사학적 차원에 주목하여 고찰한다. <기독교 강요>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그의 대표적 저술이다. 저자 스스로 자신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압축하고, 이 책을 읽을 독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1536년 초판 간행 이래 1559년 라틴어 결정판(1860년 불어판)을 출간하기까지 여러 차례의 수정과 증보를 거쳐 완결한 신학서이므로 단순한 주저(主著)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정의 자취를 통하여 그의 사상의 발달의 과정을 살필 수 있기도 하다. 이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그의 사상의 구성요소 중 수사학 전통에 힘입은 바를 파악함으로써 인문주의적 요소가 그의 신학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고찰한다.

제2부에서는 깔뱅의 종교개혁을 교육적 관점에서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개혁자로서의 깔뱅의 사역은 1533년부터 1564년까지 29년간 제네바 시라는 구체적 실천의 현장을 통해 관찰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의 개혁가로서의 실천은 신학적이며 동시에 교육적 차원을 갖는 것이었다. 신학적이란 함은 종교개혁 운동의 중심에서 기독교 신앙의 개념을 갱신하고 개신교의 신학노선을 수립하고, 신앙공동체를 조직할 새로운 원리를 고안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과업은 1차적으로 창조적인 신학적 작업과 목회적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네바 시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모든 조치와 노력들은 단순한 교회목회가 아니라 제네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목회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작은 도시 국가이지만 한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방대하고 철저한 삶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신앙에 근거한 사회교육체계를 수립하고 운용하는 일이었고 개인의 내면적 영적 변혁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은 교육에 의하여 완결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의 제네바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가르침(teaching)과 권징(勸懲, discipline)이었다. 이것은 제네바 시의 3개 교회와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깔뱅의 교육적 사상과 활동은 두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교회조직 속에서 행해진 것이다. 그는 설교와 성경강해, 생활의 권징 등 목회적 방편을 통해 교인들을 명목적 신자의 상태에서 신행일치의 진정한 신앙인(real Christian)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둘째는 교회를 위한 복음사역자와 정부를 위한 경건한 공직자를 양성하자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학교기관을 통하여 시행한 교육이다. 본 연구는 깔뱅의 교육적 측면에서는 주로 제네바 아카데미의 사역에 치중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신앙적 가치를 사회문화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교회와 정부의 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어떠한 교육적 체계와 과정을 구성하고 실천하였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결론에서는 깔뱅의 사상이 인문주의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었는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것을 설명하는 몇가지의 비유적 견해가 있다. 이양호는 동심원 모형으로써 설명하는데, 깔뱅

11) 참고 박준철.



사상의 중심에는 종교개혁자로서의 신학이 자리잡고 있으며 인문주의적 요소들이 외원(外圓)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처드 멀러는 스콜라주의에 대하여 특정한 신조나 철학적 주장이 아닌 다른 사상들을 담을 수 있는 수레(carrier)로 비유하였는데 인문주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비유이다. 본고에서는 노어트와 함께, 용액의 유비를 통하여 갈뱅에게서 인문주의는 그의 신학을 활성화하며 사상화하는 지적인 용제(intellectual solvent)의 역할이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결론 : 종교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의 타당성과 의의

본 연구의 특징과 의의는 역사적이며 인문학적 관점에서 갈뱅사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의 타당성은 인문주의 내지 인문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어떤 시대에는 종교가 인간을 바로 알기 위해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고 또 어떤 시대에는 추종되어야 할 이념으로 여겨졌다. 전자는 종교가 건장치 못한 시대였고 사람들은 영적 차원에 대한 무감각에 빠져 있으며 종교의 의미영역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갈뱅의 기독교 강요의 일관된 전제인 두 지식론에서와 같이 신성에 대한 거룩한 지식은 인간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며, 인간에 대한 참된 앎은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뜻에서 종교는 인문학적 탐구의 범주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것이라 믿는다.

2. 르네상스 문화와 종교개혁 신앙의 상관성(affinity and connection)

1. 두 시대의 접속점 위에 서 있는 갈뱅

갈뱅 사상과 인문주의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상관성이라는 주제는 마땅히 진지한 고려를 요하는 주제이다. 그는 종교개혁의 신학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동시에 그는 개신교 신학자들 중 가장 독특한 신학자로 평가되기도 한다. 역설처럼 들리는 이 말은 그가 그만큼 시대의 정신을 뛰어넘으며 동시에 시대의 정신을 깊이 반영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갈뱅(1509-1564)이 종교개혁자로서 활동한 시기는 <기독교 강요>의 초판이 나온 153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신학사적으로 종교개혁의 제2세대에 해당한다. 1517년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으로써 교황청의 신학적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영웅적인 영적 돌파(spitritual break through)를 이루어내고 신교 진영의 정치적 입지가 확보되어 가고 있었지만, 개신교 사상은 아직 신학적 체계와 교육적 프로그램으로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문화 속에 충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한편, 그는 문화사적으로는 르네상스에 속한 인물이었다. 에라스무스, 뷔데, 르페브르, Maux 그룹 등 복음적 인문주의자들과 왕립 인문학 강좌(Lecteur Royaux) 및 폴레쥬 드 프랑스로 대변되는 프랑스 인문주의의 전성기에 빠리, 몽테귀, 부르제, 오를레앙 등의 대학에서 고전학과 법학으로써 당대의 최상의 교육을 받았으며 자신의 처녀작을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으로 하여 자비출판까지 한 전형적인 인문학자였다.

16세기 초의 유럽은 교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신구교로 양분된 종교개혁의 격동기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문화적으로는 이전 시대의 연장선 상에 있었다. 그러므로 갈뱅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두 요소를 온몸으로 반영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갈뱅의 사상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시대의 연관성을 파악하지 않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관계에 내포된 물음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관계에 대한 탐구는 몇 가지 의미있는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연결시켜 주는 가장 중요한 지적 고리를 인문주의라고 볼 때,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한 르네상스는 전유럽적인 단일성을 갖는가, 아니면 이탈리아와 북방 유럽의 르네상스는 전적으로 이질적인 것이었는가? 같은 맥락에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연관성은 단지 성서와



교부문헌을 회복시킨 북방 르네상스의 기독교 인문주의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전유럽적인 르네상스 문화가 지닌 일반적인 경향성에 의한 것인가? 둘째, 직접적으로 종교적 성격을 갖지 않고 출발한 르네상스의 문화운동이 종교개혁이라는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종교적 변혁의 사건과 어떠한 인과적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연관성 문제는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성 및 종교적 변화를 위한 문화적 요소에 대한 통찰을 요구한다.

통상적으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관계는 르네상스 문화의 주요소인 인문주의 운동, 그 중에서도 북방의 인문주의를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다. 르네상스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들이 중세의 신중심적 세계관에서 인간 본위의 세속주의적 세계관을 지향하며 미학적 문예를 발달시킨 것과 달리, 북유럽의 인문주의자들은 고전고대(classical antiquity)에 대한 관심을 종교에 적용하여 성서와 교부 문헌 등을 발굴하고 번역함으로써 종교개혁의 신학적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발발에 기여하였다는 이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실들을 지적해 주고는 있으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과의 연관성을 에라스무스적 인문주의에만 집중하여 이해하게 하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연관성을 이 맥락만으로써 설명하는 것은 르네상스 문화 속에 흐르고 있는 보다 깊은 경향성과 전유럽적인 통일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며,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관계 역시 피상적인 고전학과 서지학적 차원의 설명으로 그치게 된다.

3. 르네상스 문화를 가능케 한 사회적 변동

그러면 르네상스 시대 유럽 정신의 변화의 본질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교황제와 보편교회가 대표하는 중세의 우주론적 질서를 거부하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전망(vision)을 학문과 예술과 종교의 전영역에서 추구하는 세계관 전반의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속에는 기존의 정신적 질서인 중세의 이념과 정신의 해체만이 아니라 진정한 질서를 갈망하는 함의가 담겨있었다. 그러나 중세의 우주관을 대체할 만한 자체의 명백한 우주관을 성립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르네상스 문화의 특성과 한계이다. 르네상스의 정신과 세계관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개념적 정의에 의한 설명보다는 그것을 가능케 한 역사적 변동의 과정을 먼저 일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떠한 사상이나 세계관도 형성된 후에 산출된 명제적 개념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형성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고찰하는 것이 더욱 실체를 파악하는 데 적절하기 때문이다.

4. 르네상스 문화의 특징을 형성하는 관념의 변화들

인간의 행동 전영역에서의 창조성의 발현

사회정치적 변동의 결과로 말미암은 심리적, 세계관적 변화의 긍정적인인 결과가 있었다면 인간 행동을 궁극적 질서의 패턴으로부터 자유케 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창조성을 가능케 하였다는 점이다. 정치를 종교를 중심으로 한 궁극적 질서로부터 자율적인 영역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국가는 하나의 예술품으로서, 제후는 예술가적인 존재로 만들었다.¹²⁾ 이같은 새로운 상황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기본 원리가 보편적 원리로부터 연역되는 때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창조성을 가능케 하였다. 국가의 개념을 종교적 질서에서 벗어나게 하며 일종의 예술적 작업으로 규정하려 한 것은 전반적으로 세속화의 과정이 진행되었음을 가리킨다. 이것은 르네상스의 문화가 예술과 문학의 영역 이상으로 확장되어 있었음을 상기시킨다.(부228)

전통적 질서에 대한 부정과 새로운 질서의 요청 : 르네상스 정신의 내적 요구

르네상스 정신의 특징으로서 뺄 수 없는 것은 체계적인 사변 철학과 현실적 위계제도의 거부이다. 르네상스는 중세의 신비주의에 대비되는 고대의 합리주의를 다시 천명한 사건으로 해석되곤 하지

12) 김영한,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유토피아니즘>,



만, 이러한 설명양식은 정확치 못한 것이며 오해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오히려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13세기의 지성계의 지도자들은 희랍철학에 주목할만한 호의를 가지고 그것과 계시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르네상스 문화는 바로 그러한 조화의 가능성과 그것을 강요하는 스콜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르네상스의 사상은 중세에 비하여 덜 이성주의(항상 덜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스콜라주의에 대한 르네상스 시대의 공격은 특정 이슈보다 더 넓은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다 그것은 체계적 철학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우주론적 질서와 위계적 세계관의 퇴조가 뜻하는 종교적 함의

토지에 근거한 삶은 궁극적으로 우주적인 힘과 상응하는 자연의 질서에 대한 감각을 고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의 의미를 지각하는 힘을 억제하는 면을 갖고 있다. 르네상스 시기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 속에 발달한 상인공동체와 독립적인 정치 세력들의 야심만만한 활동은 모든 삶의 경험을 예측할 수 없는 우연적인 힘들과 인간의 현실적인 재능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전통적 지배관념이었던 우주적 질서라는 것은 작용할 가능성이 멀며, 인간사와는 거의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그 대신 경험적인 현실세계에서 명백히 작용하는 사회변동의 법칙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고양했고 한걸음 더 나아가 역사에 대한 의식을 자극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이 등장한 정치적 주체들과 평신도들의 요구는 전통적인 질서의 내적 구조였던 위계의 관념을 잠식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현세적인 일들도 이 관념 속에서 제 위치를 부여받았던 것이었다. 이러한 추세들에 관하여 특기할 점은 이것이 이탈리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¹³⁾ 그리고 이 같은 궁극적 질서와의 단절과 그로 말미암은 개인화는 종교적인 국면에서 교황제의 통일적인 위계제도 하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신앙개념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적대적인 힘들이 작용하는 이 신비스런 세계에 홀로, 그리고 가장 철저한 의미에서 자신의 궁극적 운명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남겨진 것이다. 이전까지의 교회 권위의 지시적인 요구는 호소력을 상실한 낡은 관념에 의지한 것이었으므로 인간은 이제 의지할 만한 원리나 안내자 없이 남겨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르네상스 문화의 부정적 국면들은 마침내,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우리가 르네상스 문화를 그 이후의 역사적 발전과 관련하여 이해할 때 인식해야 할 것은 이것은 성취 자체보다도 그 성취가 내포하고 있는 함의가 더 의미심장하다는 것이며,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연관성은 이러한 세계관적 변화 및 문화의 심층적 경향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 르네상스 시대 인간관의 전환

관상적 삶의 이상의 붕괴-이성과 사색에서 의지와 행동, 정념으로

흔히 인간과 신의 재발견이라고 칭해지듯이 르네상스의 정신에서 인간에 대한 견해의 변화는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다. 르네상스의 시대정신과 문화가 구성하고 있던 세계관에서 인간이란 활동적이고 사회성을 본성으로 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세상 속의 인간의 삶에서는 공동체와 그에 대한 참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갈등과 변화란 떠날 수 없는 것이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관

르네상스 문화 속에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정의되었다. 인간은 우주적 위계 속에 처한 인

13) Bouwsma, *ibid.* p.228;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실은 12세기의 르네상스를 비롯하여 고대 로마의 문화의 전승은 이탈리아 밖의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페트라르카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 중에는 이탈리아 외부에서 교육받은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김영한,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유토피아니즘>,__.



류의 한 구성원이라는 자신의 추상적 지위를 잃는다 할지라도 다른 더 만족스럽고 감각될 수 있는 소속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구체적인 개인으로서 소속됨을 가리킨다. 이는 보편교회가 상징하는 우주적이고 신적인 공동체 아닌 인간적 공동체라도 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제 인간의 덕은 추상적으로 아니라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기능에 의하여 규정되었다. 인간의 활동적 본성은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삶에서만 충분히 표현될 수 있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효과적인 참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러한 관념은 중세의 금욕주의에 또하나의 타격을 가한 것이었다. 14)

르네상스 인간관과 수사학적 문화

이러한 삶의 비전 즉 활동적이고 사회적인 인간의 본성, 공동체의 가치, 피할 수 없는 갈등과 변화 및 상대적인 삶의 가치인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반영하는 것은 르네상스의 수사학적 문화이다. 인문주의자인 웅변가들은 의지에 의하여 동기부여되는 인간의 개념에 정초하였는데, 여기서 의지가 갖는 힘은 정념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간관은 태도에 있어서 원숙하고, 언어 구사에 유창하며, 세상 일에 유능한 사람을 이상형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삶을 이어주는 가장 본질적인 매개행위인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능력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서 의사소통의 목적은 절대적인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인간의 정신이 도달할 능력을 갖지 못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의사소통은 무엇보다도 설득력을 갖고 있어야 했다. 그것은 단순히 마음에 확신을 줌으로써가 아니라 정념을 움직임으로써 의지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했다. 단적으로 말해서, 가시적인 행동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격의 가장 중심부에까지 침투해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다.

이 시대에서 설득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데, 설득이 필요하였다는 사실은 위계제도의 명령계통을 통한 권위와 강압으로써가 아니라 개인의 내적 동의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탈리아 인문주의의 수사학 문화가 공화국들에서 최고도의 성취를 이룬 것은 우연이 아니었으며, 자국어의 사용이 발달한 것도 광범위한 의사소통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15)

새로운 인간관에서의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르네상스 문화 속에서 인간을 기본적으로 의지와 정념의 피조물로 보게 되었을 때, 모든 지적인 논증은 숨은 동기를 위장하는 것이었고 교리는 독재의 도구로 간주될 뿐이었다. 또한 명상적인 정적은 인간의 실제 본성에는 부적절한 것일 뿐 아니라 타인의 복지를 위한 책임을 거부하는 것이었으므로 르네상스의 변화된 문화 속에서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재정의될 요구받게 된다. 새로운 인간관은 인간이 궁극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주 속에 홀로 서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는 중국에 가서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도 변형을 초래했던 것이다. 즉, 죄의 문제를 다름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개념을 갖게 하였다. 이제 인간은 이성적 논리나 신에게 더 가까이 있는 다른 인간의 중재(mediation)를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리고 개인적이며 인격적인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종교개혁이 제시하게 될 오직 신앙에 의한 구원, 만인사제설 등의 개신교의 핵심 교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학적 사고의 범주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르네상스의 종교성: 르네상스 문화 속의 종교적 동인과 한계

르네상스의 다양한 양상과 성격에 관하여는 그 자체로 방대한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종교개혁과의 연관성에 있어서 주요한 논점은 르네상스 시대의 종교성과 세속성에 관한 것이다. 계몽주의

14) Bouwsma 231

15) Bouwsma, 232



시대의 역사가들과 19세기의 부르크하르트 이래로 르네상스는 주로 중세로부터의 단절과 세속성의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왔다. 르네상스는 회랍, 로마의 고전에 근거한 학문과 예술의 발달, 인간의 능력과 존엄성에 대한 각성 등을 특징으로 하여 형이상학적으로나 현실 사회질서에 있어서 중세의 제도 종교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을 강하게 띠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면에 르네상스의 종교성, 구체적으로 르네상스 문화의 주역들인 인문주의자들의 종교성에 관하여는 쉽게 부정적인 평가로 단순화할 수 없는 측면들이 대단히 많이 발견된다. 르네상스 역사 연구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 크리스텔러 등은 르네상스 시대 인간관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 인문주의자들이 여전히 종교적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기독교적 르네상스를 주장하기도 하였다.¹⁶⁾ 예를 들어 페트라르카는 고전철학에서 발견한 도덕적 가치를 예찬하고 선진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신의 은총에서 비롯되는 구원의 신념 안에서 자기 회의와 절망을 극복하려 한 독실한 기독교도였다. 고전문학 속에서 기독교적 도덕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으며 자신을 찾아온 아베로에즈 추종자의 반기독교적 태도를 신랄히 비난한 바 있다.¹⁷⁾ 살루타티는 당시의 교회와 성직자가 플로렌스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회의적이었으나 자신의 저서에서는 신의 절대적 힘을 자주 운위하고 운명도 우주의 만물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섭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¹⁸⁾ 이러한 국면은 플로렌스에서 사보나롤라에 의한 신앙의 부흥이 거세게 일어난 사실을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지배적 동기로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더 이상 사람들을 한데 묶는 공동의 끈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잃어 가고 있었다. 종교생활은 일종의 관습적 형식적 일로 변해갔으며 기독교는 점성술, 미신과 나란히 존재했다. 다만 르네상스의 세속주의적 성향과 함께 종교적인 국면을 통하여 주지되어야 할 사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중세적인 종교관, 즉 중세 카톨릭시즘으로 표현된 기독교의 세계관을 탈피하고자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전적인 반종교 내지 탈종교화는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르네상스인들이 중세적 종교, 당시의 카톨릭시즘을 부정한 데에는 새로운 종교에 대한 갈망과 추구의 도전이 함의되어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기독교 신앙을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재정의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이탈리아나 북방 유럽 구별없이 전유럽에 걸쳐 광범위하게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인문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중세 후기의 스콜라 진영에 속한 학자들도 독립적으로 시대의 저변에 흐르는 기류들을 표면으로 끌어 올리며, 신학을 그것들에 조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르네상스의 종교성에 관한 결론적인 평가는, 그들의 종교성이 실제 현실에서 종교적 변혁을 이루는 동인으로 작용할 만한 것은 못되었다는 것이다. 인문주의자들에게는 신학적 관심이 부재하였으므로 자신들의 종교적 비판이 갖는 함의를 충분히 발전시킬 수 없었다. 그들은 기독교와 도덕적으로 건강한 문명을 동일시하였으나 그리스도인들을 은총의 영역 속으로 이끌지 못하고 다만 인간 속에 있는 신성의 섬광(spark)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¹⁹⁾ 특히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문화가 종교적 변동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데에는, 신학적 관심과 역량의 부족 외에 사회정치적 변화가 종교적 변화를 위한 사회적 압력을 제거하였다는 이유가 있다. 외국의 침입과 전쟁이 계속됨

16) P.O.Kristeller, *Eight Philosophers in Italian Renaissance*(Stanford University Press,1964),p.6.

17) E.Cassirer, *The Renaissance Philosophy of Man*(University of Chicago Press,1948) p.23. 페트라르카는 *On His Own Ignorance*에서 “키케로를 예찬하는 것이 키케로주의자가 되는 것이라면 나는 키케로 주의자이다. ...그러나 종교, 즉 최고의 진리이고 참다운 행복이며 영원한 구원인 종교에 대해 말하게 될 경우 나는 키케로주의자도 플라톤주의자도 아닌 기독교도일 뿐이다. 키케로가 만일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교리를 이해했다면 그도 역시 기독교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Ibid.*,p.115.

진원숙,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기독교” <대구사학>(1989)재인용.

18) Ronald G. Witt, *Hercules at the Crossroad*, pp.127-132, 진원숙,op.cit.,303

19) Bouwsma, 236



로 사회가 전반적 불안 속에 처하였고 무력감의 증대로 인하여 자유는 기회가 아니라 위협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한 독재정치의 확대는 시민생활의 긍지를 감소시키고 귀족제와 계층적 사회질서를 조장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교황의 전횡을 억제할 수 있었던 공의회 시대는 지나가고 교황권이 회복됨으로써 옛 우주론적 지식, 위계적 원리, 성직자의 우위성을 다시 주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르네상스의 종교적 불안은 크리스천 인문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종교저작 활동과 곧이어 나타날 개혁자들의 독특한 영적 체험과 신학적 작업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 1 부]

1.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본질과 특성

기독교와 인문주의의 만남이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은총, 영적인 성령의 기름부음이 부재했을 때 인문주의 세속학문과 예술은 종교적 형식의 학예사이의 혼합종교가 되고 말았다. 라파엘로가 자신의 회화작품 아테네 아카데미에서 표현했듯이 기독교를 고전 예술과 문학과 만나게 하여 새로운 휴머니즘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르네상스 시대의 이념이었지만 사보나롤라를 처형한 악명높은 알렌산더 교황의 후임으로서 영적인목표도 영적 생명력도 없었던 율리우스 2세는 근대적인 성곽과 궁정의 예술장식에만 몰입하는 세속영주로 되고 말았다. (마이클 콜린스 126)

1) 인문주의의 어원적 정의

갈뱅 외에도 쓰빙글리, 벨란히톤 그리고 때로는 루터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인문주의적 성격을 지적할 때마다 야기되는 오해와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인문주의는 humanism, 또는 humanismus의 번역어이지만 이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인간주의, 인본주의, 인도주의, 인간중심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는 사실에서 보듯이 매우 다의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다. 넓은 의미의 휴머니즘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강조하고 인간의 삶과 조건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는 사상과 사조를 가리킨다.²⁰⁾ 그러나 인간의 조건과 가치는 입장과 관점에 달라지기 때문에 휴머니즘이라는 용어는 시대마다 다른 의미를 갖고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르네상스 시기의 크리스천 휴머니즘이 있었는가 하면 미국의 존 듀이를 비롯한 인사들이 제창한 휴머니스트 선언은 철저한 탈종교를 주장하며 학문의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선언이었다. 그래서 적당한 수식어만 붙이면 휴머니즘의 종류는 무수히 생겨날 수 있다.²¹⁾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의 휴머니즘은 서양의 근대문화와 지적 전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 14세기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²²⁾ 그리고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을 지칭할 때는 그것이 학문과 교육, 문화에 관한 정신이며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인문주의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²³⁾

20) 20세기의 W.베네트는 인문주의 학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인문학은 인간의 경험에 관하여 가장 잘 말하고 있는 기록이다. 인문학은 우리 문명과 다른 문명에 속한 남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영원한 질문들 즉 정의란 무엇인가? 무엇을 귀중하게 아껴야 하며,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등의 문제와 어떻게 부딪쳐 싸워 왔는가를 말해준다. *A Report on the Humanities in Higher Education*,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1984)

21) 시대적으로 고대의 휴머니즘 중세휴머니즘 르네상스 휴머니즘 현대 휴머니즘 등이 있을 수 있고 현대의 휴머니즘은 다시 연관된 학문영역이나 신조에 따라 마르크스 휴머니즘, 그리스도교 휴머니즘, 실존주의 휴머니즘 과학적 휴머니즘(헉슬리) 실용주의 휴머니즘 (설러) 문학적 휴머니즘 종교적 휴머니즘)

22) Nicola Abbagnano, "Humanism",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4p.69

23) (참조 : 인문주의의 개념을 논하는 모든 연구자는 그 개념의 다의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김영환은 르네상스 휴머니즘을 다른 시대의 휴머니즘과 구별하기 위하여 인문주의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이 고대의 파이테이아- 인문적 교양을 통한 인간성의 함양-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시대에는 휴머니즘(영어의 humanism 이나 독일어 어휘 humanismus)이라는 말은 쓰이지 않고 있었다. 인문주의의 내용인 교양학문을 지칭하는 후마니타스(humanitas)라는 용어라든지,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생을 뜻하는 휴머니스트humanist라는 어휘는 르네상스 시대에 이미 쓰이고 있었으나 오늘날 인문주의 사조 및 정신적 태도를 가리키는 뜻으로 휴머니즘이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은 1808년 독일에서였다. 24) 독일의 교육학자인 니이타머(Friedrich .I. Niethammer)가 <현대 교수법 이론에서 휴머니즘과 박애주의의 논쟁>(Der Streit des Humanismus und Philanthrophismus in der theorie des Erziehungsunterricht unsere Zeit (Jena,1808)을 출간하면서 중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위하여 고전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기 위하여 새로 만든 용어가 휴머니즘이었다.25) 이 사실은 현재 우리가 인문주의로 번역하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이 이데올로기적 신조를 체계적 "이즘(ism)"의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었음을 시사해 준다. Allan Bullock이 주장하듯이 르네상스의 인문주의는 광범위한 정신적 경향 내지 신념 “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26)

한편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가 고전학문의 교육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시 인문주의자(humanist)를 뜻하는 라틴어 humanista와 이탈리아어 umanista 라는 말에서 잘 드러난다. 이 단어들이 발생한 시기는 15세기 후반이었다. 이 말은 당시 이탈리아 대학의 학생들 사이에서 통용되었던 일종의 은어로서 고전어와 고전문학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나 중등학교의 교사들을 가리켰었다. 16세기 경에는 가르치는 사람만이 아니라 고전학문을 배우는 학생과 연구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되었다. 그 당시 시민법 교수를 레기스타legista, 교회법 교수를 canonista라고 부른 것처럼 고전학문에 바탕을 학과목인 studia humanitatis를 가르치는 사람을 humanista 또는 umanista라고 하였다.27)

그러면 스튜디오 후마니타티스는 무엇인가? 여기서 스튜디오 후마니타티스는 오늘날의 인문학(humanities)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으로서, humanitas 즉 인간성 또는 인간다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문이다.28) 서양 전통 속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말이 그리스의 파이데이아(교양, 교육, 함양)를 로마인들이 라틴어로 옮긴 것이라는 사실이다. 희랍인들은 후마니타스를 야만 즉 barbaritas에 반대되는 교양, 교육, 학식, 학문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성과 인간다움을 소유한 사람이란 곧 교양있고 학식있는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학식있고 교양있는 사람만이 야만에서 벗어난 “사람다운 사람(homo humanus)이 될 수 있으므로 교양이야말로 인간의 덕성과 수월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다. 29) 고대의 라틴작가 중 후마니타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로마의 웅변가이며 수사학자인 키케로였다. 이것은 인문주의가 학문으로서는 수사학과, 실제 기능으로서는 웅변과 깊이 연결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사실이다. 키케로는 이상적 인간상을 웅변가에서 찾았다. 키케로는 훨씬 고대의 이소크라테스의 전통에 따라 웅변을 단순히 능란한 언변이 아니라 지혜와 수사학의 결합으로 보았다. 웅변가는 폭넓은 학식과 경험 그리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했다. 그래야 남을 선도하고 남에게 덕행을 권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에서 후마니타스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야말로 웅변가

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가장 본래적인 인문주의의 의미이고, 이것에 충실한 정신운동의 성격을 띠었던 것이 르네상스 시대 휴머니즘이었기 때문이다. . 김영한,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본질과 특성” 김영한, “서양의 인문주의 전통과 그 변천“ (역사학회, 1998, KRF연구결과논문)

24)김영한, Ibid.,3.

25)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휴머니즘의 개념을 역사서술에 도입한 사람은 포이그트(Georg Voigt)이다. 그는 1859년 <고전고대의 부활 및 휴머니즘의 첫 세기>(Die Wiederbelebung des classischen Alterums, oder das erste Jahrhundert des Humanismus(Berlin,1859) 에서 르네상스를 휴머니즘의 시대라고 주장했고 일년 후에 이 주장은 유명한 부르크하르트에 의하여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Die Kultur der Renaissance in Italien(Berlin,1860)를 통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26) Allan Bullock, The Humanist Tradition I the West(London,1985), p.9. 김영한, op.cit. p.1. 재인용.

27) P.O. Kristeller, Renaissance Thought and Its Source(New York, 1979) p.22.

28) 동양의 인문학의 전통에서 인문(人文)을 고대에는 인문(人紋)으로 표현한 것과 통한다 하겠 가.

29) 김영한, Ibid.,4.



의 육성에 가장 적합한 교육이었다. 그는 후마니타티스를 가리켜 인간 정신을 고귀하고 완전하게 해 주는 학문이며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연구하고 찬양하였다.³⁰⁾

(르네상스에서 다시 대두된 인문주의)

고대에서 적극적으로 찬양받았던 후마니타스는 중세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왜냐하면 중세의 후마니타스는 인간보다 우월한 신성(divinatis)에 대비된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본 인간은 타락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였고 따라서 중세에서는 인간적이 되면 될수록 인간다와지면 질수록 그것은 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뜻하였다. 이처럼 고대에서 인정받았던 인간의 현세적 영광은 공허한 것이 되어 버렸으므로 인문교육과 교양교육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후마니타스에 대한 고대의 개념이 부활되고 인문학이 활기를 띠게 된 것은 바로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였다.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들은 키케로 전통의 영향을 받아 후마니타스를 “인간의 품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교양”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학문인 스튜디오 후마니타티스를 매우 중시하였다. 15세기의 대표적인 인문주의자인 부르니(Leonard Bruni)는 스튜디오 후마니타티스를 가리켜 “인간을 가장 완전하게 만들어 주는 최고의 학문”이라고 주장하였고 베리제리오(Pier P. Verigerio)는 “인간의 정신을 고귀하게 하고 신체의 재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학문”이라고 강조하였다.³¹⁾

2. 르네상스 문화 속에서의 인문주의

(인문주의의 사회적 상황)

르네상스에서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15,16세기 사회에서 인문주의는 당대의 새로운 정신풍토를 형성하는 지적유행이며 교육과정이었다. 이 운동의 사회적 양상은 한편으로는 에라스무스나 뷔테 등의 학자들과 베니스의 알도 마누지오, 바젤의 요하네스 프로벤 등과 같은 출판업자, 교황 레오 10세, 프랑스의 국왕 프랑수와 1세 같은 후원자들이 관여하는 높은 수준의 학문세계를 가리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10대 소년들이 라틴어와 희랍어에 골몰하고 있는 영국의 문법학교나 예수회 대학들, 개신교 교육기관의 단조로운 세계를 가리킨다. 인문주의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가졌지만 고전교육을 받은 엘리트들만의 배타적 운동이었던 반면, 한편으로는 당시 교리적 차이로 분열된 유럽의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공통의 언어를 제공하는 가교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학 교수나 작가로 입신하였고 그 중 더 유능하고 연줄이 있는 사람은 교회나 국가의 주요 공직을 차지하였다. 토마스 모어, 윌리엄 셰실, 야콥 스투름 등과 같은 사람들이 전자였고 나머지는 법률가, 일반 성직자, 비서, 관리, 교사 등이 되었고, 도시 원로의 자제나 향사, 소귀족, 상인, 자영농의 자제들은 지적 훈련을 접고 영지관리나 상업에 종사하였다. ³²⁾

인문주의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 문화현상으로서 희랍, 로마의 고전과 고대 기독교 교부들의 원전으로 돌아가서(ad fontes) 새로운 인간상을 발견하고 세계를 이해하며 표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고방식을 수립하고자 하는 학문과 교육의 새로운 조류였다. 앞장에서 약술한 바와 같이 르네상스 정신은 인간의 문제를 인간 자신이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인간의 사고 능력에 대한 확신, 인간의 가치와 개성의 존중을 전제로 하여 인간의 창조력과 능력을 육성하며 궁극적으로 인류 사회의 발전과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다. 중세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절대자의 존재에 의지해서 행해졌고 피안의 세계에서 해결책을 구했으나 르네상스 시대는 차안의 세계에서 해결하려는 양상을 띠게 되는데 그 때의 전범이 되는 것이 희랍과 로마의 고전이였다. 이것을 실천함에 있어 교회의 정신적 권위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지식과 이성을 근거로 한 세계관을 구성하는 것이 르네상스 문화의 목표였다면 이것을 표현하는 학문과 교육운동이 인문주의였다.³³⁾

30) Cicero, *De Oratore*, II.35, tr., E.W. Sutton(London, 1967), 223. 김영한, *Ibid.*,5 재인용.

31) D. Weinstein, ed., *The Renaissance and Reformation*(New York, 1966) p.74.

32) Richard Rex, "Humanism" in *The Reformation World*, A. Petegree ed., (Routledge,2000) p.51.



(르네상스 문화에서 인문주의의 비중)

인문주의는 철저히 학문과 문필,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인 운동이었던 반면 르네상스 시대의 총체적 문화변동은 인문주의자들의 활동과 저술만으로 담아내어 지지 않는 것이었다. 앞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지리적 활동공간의 확대, 상업의 발달과 기술적, 정치적 변화 등 총체적인 문명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던 르네상스 문화는 지적 문화 외에도 더 넓고 깊은 경향성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문주의를 르네상스 문화 자체와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이 양자는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즉 르네상스 문화는 인문주의에서 자기표현을 얻었고 인문주의자들은 르네상스 문화의 활동가(agent)였다고 말할 수 있다. 부연하거니와 그리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주류가 근본적으로 수사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학은 도구적 성격의 학문이지만 언어와 문헌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학문이었으므로 그 시대의 깊은 정신적 요소와 문화의 흐름을 담아 낼 수 있었다. 이는 마치 중세 초에 고대의 학문과 종교가 라틴어 교육을 통하여 전승될 수 있었던 것과 유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스콜라주의와의 대비)

르네상스 및 종교개혁 시기의 정신적 흐름은 스콜라주의와 인문주의로 대별된다. 양자의 특성은 서로의 비교를 통해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콜라주의는 중세의 종교적 이념을 대표하며 인문주의는 종교적 세계관을 부정하는 인간중심의 세속주의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인문주의는 당대의 신학문사조 였으나 중세의 종교를 부정하려는 운동이 아니라 중세의 학문인 스콜라주의의 패러다임을 극복하려는 운동이었다. 그 내용은 언어와 수사학에 중심을 둔다. 실제로 앵글로색슨 세계에서 인문주의는 커뮤니케이션의 지식과 기술로 인식되었다.³⁴⁾ 인문주의자들은 중세적인 학문양식을 비판하였다. 그들은 스콜라적 논리학과 철학의 다음절(多音節) 용어와 “야만적 “ 문체, 중세후기 라틴어의 고전적이지 못한 문법을 비롯했으며 스콜라학자들이 수사학적 세련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한 것을 경멸하였다. 스콜라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하여 졌다. 인문주의자들은 논증을 강조하는 스콜라주의를 초점이 없고 사변적이며, 사회적인 면에서나 종교적인 면에서나 도무지 현실상관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중세신학자들은 바늘 꼭지 위에서 몇 명의 천사가 춤출 수 있느냐에 대해 논쟁했다는 얘기는 스콜라주의에 대한 인문주의자들의 공격에서 연원하는 것이었다. 문체(style)의 비판은 방법론적 비판이기도 했다. 인문주의자들이 극복하고자 한 것은 당대의 싸구려(junk) 주석신학이었다. 당시의 일반적인 수도승들의 학식 교육수준은 매우 낮았다. ³⁵⁾ 독일의 경우 성직자들의 저급한 교육수준은 멜란히톤을 통탄케 하였다.(박준철 12)

인문주의 정신이 스콜라 전통과 현저히 구별되는 점은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실용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서였다. 14,15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지배세력들은 수사학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다. 스콜라 철학의 추상적 담론은 근대 세계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스콜라 교육은 논리에 의존하여 진리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고의 체계로 조직하는 것이었다. 반면 인문주의자들은 수사학과 설득 기술에 관심을 두었고 영감을 구할 대상을 고대의 철학자들보다 웅변가 시인 역사가들에서 찾았다. 그들이 이성에 의한 이성적 확신보다 설득을 선호한 것은 인간존재를 보는 관점에서 정념적이고 활동적이며 사회적인 면이 지적인 존재보다 앞선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³⁶⁾ 여기서 인문주의자들은 언어에 관심을 집중한다. 인문주의자들은 언어를 세계에 대한 진실을 전달하는 매체라기 보다는 감정을 움직이고 행동 의지를 자극하는 사회적 삶의 한 구성요소로서 간주하였다. ³⁷⁾

33) 박상진, <이탈리아 문학사>,p. 88.

34) (맥 까뱁 전기 52-52)

35) (Rex53)

36) (w113,4)



3. 인문주의의 실체와 사상적 기능 : 철학적 신조(doctrine)인가 정신적 자세(mentality)인가?

인문주의는 르네상스 문화와 종교개혁의 신학적 돌파(breakthrough)을 연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지적 고리이다. 그러나 인문주의의 구체적 정의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관련성에 대해서, 그리고 본고의 주제인 깔뱅과 인문주의의 관계에 대하여도 아직까지 결정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³⁸⁾ 따라서, 인문주의의 실체를 규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인문주의의 정의는 아무도 그것의 정의를 내린 사람 외에는 만족시켜 본 적이 없다”³⁹⁾는 말이 있을 만큼 개념상으로나 역사적 기능에 있어서 다양한 면모를 가진 것이었다.⁴⁰⁾

인문주의의 실체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의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논점이 되어야 할 것은 1) 인문주의가 과연 르네상스의 새로운 철학이었던가의 문제이며, 2) 그렇지 않다면 인문주의 사상적 내용과 기능은 무엇이었던가에 맞추어 져야 한다.

종교개혁의 지적기원과 깔뱅의 신학적 전기를 쓴 맥그래스에 의하면 인문주의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인문주의는 고전학문과 언어연구에 몰두한 지적 운동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문주의자들이 왜 고전을 연구하고자 했는가라는 질문이다. 인문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연구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으며, 그 주된 목적은 문장과 연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⁴¹⁾ 바꿔 말하여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들은 고전 작품을 용변의 표준으로 간주하고 그것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지도를 받기 위하여 연구하였던 것이다. 고전에 대한 학식과 언어학적 능력이란 고대의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도구였다. 자주 지적되는 바와 같이 인문주의자들의 저술은 문장작법과 연설의 향상을 위하여 쓰여진 것이 고전 자체와 언어학 연구를 위한 저술들보다 그 수에 있어서 훨씬 능가하였던 것이다.⁴²⁾ 인문주의자들이 고전연구는 용변과 수사학의 성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그것의 연구과정에서 적용하고 발전시킨 서지학의 방법은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정신을 고양시켰다는 점에서 종교개혁과의 상관성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의 입장은 인문주의를 르네상스의 새로운 철학을 구현하는 운동으로 보는 입장으로서 르네상스와 중세와의 단절을 강조하는 부르크하르트의 전통적 견해에 뿌리를 둔 것이다. 그는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르네상스 사상 전체와 동일시하였는데, 르네상스는 스킴라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것이며 인간중심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 등을 지향하며 근대적 의식의 생성에 기여한 것이었다.⁴³⁾ 이 견해는 20세기에 들어서 딜타이에 의해 제기되고 카시러 등에게 지지를 받으며 지속되었다.

이 입장에서 볼 때 인문주의는 카톨릭의 중세적 패러다임을 타파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종교개혁의 도래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고 1517년 이후에도 잠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인간의 개성과 자율성을 증시하고 합리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인문주의 정신이 신 중심의 초자연적 세계관에 기초한 종교개혁과 본질적으로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는 전통적 이론을 낳게 된다.⁴⁴⁾

37) (B114-1)

38) 껌글의 연구사 참조

39) (A.Bullock, 박준철 중세 인문주의)

40) (노어트 서문)

41) Charles Trinkaus, "A Humanist Image of Humanism : The Inaugural Orations of Bartolommeo della Fonte", Studies in the Renaissance 7(1960), pp.90-147 ;

H.H. Gray, "Renaissance Humanism: The Pursuit of Eloquence" in Renaissance Essays eds. P.O.Kristeller and P.P. Wiener(New York, 1968), pp.196-216.

A.McGrath, Reformation Thought: An Introduction(Oxford, Blackwell, 1988), 박종숙, <종교개혁사상입문>(성광문화사, 2002), pp.57-59. 재인용.

42) A.E. McGrath, Reformation Thought: An Introduction(Oxford, Blackwell, 1988), 박종숙, <종교개혁사상입문>(성광문화사, 2002), pp.58.

43) 껌차섭, 175



셋째,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의 양립을 부인하는 전통적 견해를 반박하며 크리스텔러가 제시한 견해로서 그는 인문주의를 수사학 전통의 부활을 주내용으로 하는 교육적 문화적 프로그램으로 이해한다. 45) 크리스텔러는 인문주의의 본질이 일정한 철학사조가 아니라, 희랍 로마의 고전 학을 통하여 수사학, 어학, 역사학, 시, 윤리학 즉 스튜디오 후마니타스를 사회전반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학문 교육운동으로 규정한다. 인문주의자들이 철학적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성격상 현실과 유리된 철학적 추상화를 싫어했을 뿐 아니라 어떤 통일적인 견해나 신조를 공유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46) 인문주의에 대한 크리스텔러의 이해의 관점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성격은 인문주의자들의 저술을 문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인문주의는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사회적 관계의 맥락 속에서 다른 여러 전통들과 상호작용하는 활발한 지적 운동이었으므로 문학적 “텍스트의 개념분석” 보다는 그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맥그래스 wjsr1 전기)

그는 인문주의의 본질을 모든 인문주의자들을 동질의 단일집단으로 묶어주는 요소, 즉 고전과 ‘스튜디오 후마니타스’를 통하여 사회에 필요한 교양인을 양성한다는 그들의 공통의 목표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47) 사실상 인문주의와 같이 복합적인 요소와 다면적인 기능을 가진 사조의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본질로 볼 것이며, 그것이 역사적 사조로서 미친 영향력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두어져야 한다.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이후의 다른 시대의 인문학적 사조가 끼쳤던 영향보다 더 큰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는 것은 그것이 몇 가지 세계관적 입장과 철학적 명제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모든 기존의 전통적 사상들을 비판하고 종합시키는 정신적 태도(mentality)와 틀(mind set) 때문이었다. 명제적 요소는 다른 사상과 어떤 맥락에서 관계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상이한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루터는 신학적 명제에서는 인문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신학적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인문주의를 극히 옹호하고 신학교육이 철저히 인문주의적 내용으로 개혁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실천에 옮기었다. 그럴 때 루터와 인문주의의 관계는 신학적 명제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으며, 인문주의 정신 속에는 신학적 철학적 명제보다 더 지배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크리스텔러의 견해는 인문주의와 다른 전통과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받는 것이었다. 그의 견해는 인문주의자들을 수사학자로 동일시하는 문체라든지, 수사학적 교양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간과하는 등의 한계를 갖고 있으며,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더욱 주목하는 한스 바론 등의 시민적 인문주의의 입장과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역사적인 지적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조명해 주는 탁월한 해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48)

44) 박준철, 6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에 대한 논고와 루터의 노예의지론의 비교를 근거로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은 사상적으로 상반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Steven Ozment, *The Age of Reform 1250-1550*(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0), 290-302) 박준철 p.4)

이 외에 한스 배런의 견해가 있다. 이는 그가 시민적 인문주의(civic humanism)라고 칭한 것으로서 인문주의는 근본적으로 키케로의 정치적 이념들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하여 그를 연구했던 공화적 운동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인문주의를 사회적 맥락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입장이다. 이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사회정치적 변화의 구조를 이해하는데는 대단히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는 견해이지만 종교개혁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약하다고 판단되어 본고의 고찰에서는 제외하였다.

45) 맥60 곱180

46) 그러한 한 예가 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강조가 전형적인 인문주의의 신조라는 일반적인 오해이다. 신앙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신학적 입장은 인문주의자들만이 아니라 학문추구의 방법론에 있어서 인문주의와 정반대의 입장에서 있는 중세 스콜라 신학의 한 핵심으로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것이다. (박준철 *멜란히톤* 주15),

47) P.O. Kristeller, *Renaissance Thought : the Classics, Scholastics*, (New York, 1961)



6. 인문주의와 수사학 전통(Willis)

인문주의와 수사학 전통과의 관계를 살피기 위하여 먼저 인문주의의 학문적 성격을 일별할 필요가 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의 주장과 활동은 인문주의가 1차적으로 교육과 학문의 운동이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그들이 의도한 교육은 오늘날의 인문교육에 해당된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의 조화로운 발전, 지혜와 수사학의 결합, 교양과 덕성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학문운동으로서의 인문주의의 성격은 교과과정에 잘 나타난다.

인문주의 학문의 교과과정상의 지향은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서구 지성사에서 철학적 전통과 대비되는 수사학 전통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willis 참조) ---는 서구지성사를 이 양대전통으로 설명한다

활동적이고 사회적인 삶의 이상(vita activa)이 들어선 르네상스 시대에 수사학 전통이 각광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전통의 내용이 되는 것은 고전고대에 관한 지식이었다. 새로운 철학이라고 할 때는 신조가 있는 사조를 지칭하지만 인문주의는 지식과 신조 자체보다는 그것을 얻기 위한 인식론과, 표현을 위한 방법론적 지식으로서 일종의 사고틀(mental set)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이것의 관심은 현세적인 삶의 문제였고 이것을 위하여 실증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추구하였다. 인문주의 학문은 르네상스 정신이 함축한 중세에 대한 압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종교개혁의 사상을 담아 표현해 주는 도구적 학문으로서 또는 지적 용제(intellectual solvent)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8. 기독교 신학에 대한 인문주의의 영향

인문주의는 당시의 기독교 신학에 의미 깊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 충격은 한동안 역사가들에 의하여 인문주의가 기독교에 적대적인 것이며 성과 속의 대립, 기독교 신앙에 맞서는 이교적 부흥을 가져온 것으로 관찰되기도 하였지만 2-3세대 동안의 학문적 연구는 많은 기독교 지식인들이 인문주의 기법과 이상들을 열심히 포용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인문주의는 특히 신학 부문에 깊은 상관성을 맺었으나 신학 자체보다는 종교적 학문과 관행의 변화를 일으켰는데(59-60) 이는 인문주의가 철학이나 신학적 주장을 위주로 하는 학문이 아니라 언어연구, 문헌고증, 문학적 표현과 웅변의 설득에 기반을 둔 학문이며 또한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영향은 교리보다는 정신적 태도, 관점, 사고방식(mentality) 차원의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인문주의와 기독교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한다. 어거스틴은 물론 암브로스, 크리소스톰 등 대부분의 라틴 교부들은 수사학자였었다는 점, 이들 라틴 교부들로 인하여 수사학 전통은 르네상스 시대에 상당한 존중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인문주의가 신학자들에게 학문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주요인은 텍스트(text)에 대한 존중의 태도이다. 이는 원전으로부터 지혜를 찾고자 했던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의 1차적인 공통성이었다. 인문주의자들의 1차적 기여는 성경 원문과 교부저작을 편집 정리하였다는 것이다. Jacques Lefevre d'Etape는 1509는 5가지 라틴역(제롬 이전 번역, 제롬역, 갈리칸 시편, 70인역의 라틴역, 히브리 시편의 라틴역)을 대조한 시편(Quincuplex Psalter)을 출간했고, 1513년에 바울 서신 주석을 내놓았다. 루터는 비텐베르그에서 르페브르의 시편 주석을 사용(1512-18)하였으며, sola fidei는 르페브르의 로마서 노트에 발견되는 표현이다. 에라스무스의 Novum Instrumentum(회-라대역)은 르페브르의 저작보다 더 극적인 충격을 주었다. 이것은 그의 명성과 전유럽적인 네트워크로 인하여 신속히 팔려나갔다. 이 책의

48) Garin, H. Baron은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시대적 상황과 관련성을 경시한 채 학문적 또는 직업적 활동으로만 간주하는 것에 반대하여 정치적, 사회적 운동으로 파악하는 시민적 인문주의(civic humanism)의 해석을 주장한 적도 있다. (p. 176) 의 크리스텔러의 정의는 이미 르네상스사 연구에 있어서는 떠오르는 이견일치 함의의 우치를 얻고 있다 다만 종교개혁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종교개혁사 전공 연구자들 가운데서는 기존의 명제 중심의 사상사적 접근경향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박준철 7, 주 14



의의의 일부는 라틴 서방기독교에 신학공동체에 최초로 희랍어 신약성경을 접하게 해주었다는 점이다. 그보다 더 큰 의의는 그의 라틴어 번역이 불가타 번역과 달랐다는 사실이다. 제롬이 요한복음 첫머리를 태초에 verbum이 있었다를 sermo로 치환하였다. 이것은 희랍어 logos에 대한 저 더 정확한 의미부여의 시도였다. 이것은 에라스무스가 전통적인 가치를 불경스럽게 공격한다는 것을 대표하는 사례로 비난되었다. 이것은 교회의 무오류 전통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그의 도전은 불가타의 필사상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 이상이었다.

15세기에 들어서 라틴 고전과 교부저작에 대한 발견과 번역이 촉진되면서 희랍학문에 비하여 라틴적 중세의 지식이 급격히 확장된다. 그 이전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 유클리드, 프톨레미, 플라톤의 <대화>가 고작이었다. 제한된 선택과 강한 기술적 편견이 지배했던 중세 교회에서 희랍교부들에 대한 지식은 희랍고전에 대한 지식보다 더 제한적이었다. 유세비우스의 저작은 초기 판본만이 있었고 크리소스톰의 설교집은 일부만이 존재하였다. 동방신학에 대한 의혹과 아울러 희랍어의 무지는 서방교회로 하여금 희랍교부들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켰었다. 인문주의가 서방 신학에 기여한 바는 희랍어 연구를 되살리고 희랍교부 저작에 접할 수 있게 한 것 이상으로 서방신학자들이 역사적 편견을 극복하고 희랍교부 저작을 실제로 읽게 될 만큼 지적 개방성을 갖게 한 것이다. 세속 자료에 대한 개방성은 일반 학문의 신학 외 학문에 대한 개방성을 낳았다. 인문주의는 중세문화를 관통했던 세속 학문에 대한 경건주의의 적대적 체질에도 불구하고 고전 고대의 이교적 유산에 대한 개방성을 함양했다. 15세기는 희랍교부 연구에 엄청난 진전을 가져왔다. 1430년대 플로렌스 공의회 대표였던 베사리온 추기경과 다른 대표들의 화물을 통하여 희랍사본들이 이탈리아로 유입되었고, 카르멜회 수사인 암브로지오 트라베르사리는 바질, 위(僞)디오니시우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물론 크리소스톰의 전작을 거의 다 번역하는 등이 인문주의자들은 기독교와 세속영역에 공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인문주의자가 기독교도 이었다든지 기독교적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는 없다.

9. 기독교 인문주의

인간 본성의 재발견과 실현이 인문주의의 주요 목적이었다면 기독교 인문주의는 신중심의 세계관을 전제로 하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인 피조물로서 인식하며 인문주의적 통찰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신앙 하에서 피조물로서의 인간발견,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인간실현이었다. 인문주의는 신본주의와 결부되어 발전하기도 하였다. 칼뱅의 신학은 인문주의와 상충이 없는 신학을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주 실존주의가 종교적 실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로 각기 갈래를 갖고 발전하는 것처럼)

당시는 성숙 학문을 구별하는 인식자체가 뚜렷하지 않았던 시대였으므로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은 대개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통전적 신앙관을 가진 기독교인이었다. 대표적인 예로서 에라스무스는 교회사에 포함시켜야 할지 문화사에 넣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당시 16세기 문화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세속 학문과 기독교 학문 공히 쌓은 업적 때문이다. 라틴 문장집 . 금언집 세네카 주석, 성서 편찬(노뎀 인스트루멘툼), 교부문집의 비평적 편집, 키프리안, 제롬, 락탄티우스, 암브로스, 아타나시우스, 크리소스톰, 이레니우스, 어거스틴 그리고 그가 애호했던 오리겐 등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경이적인 업적을 남겼다. 종종 인간학문과 신성한 계시의 협동에 대한 그의 경건한 인식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독교 철학 philosophia christi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이는 그가 쓰려고 한 용어가 아니었다. 그의 시대는 성숙의 분리가 이해되지 않는 시대였다. 오늘날 21세기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과 속의 분리는 16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오늘날의 관심에서 이 시대의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에게는 종교와 학문, 세속영역과 교회적 영역의 통합하는 종교적 지성의 자세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크리스텔러, Renaissance Thought : the Classics, Scholastics, (New York, 1961)



10. 종교개혁과 인문주의

종교개혁과 인문주의의 관계를 다루는 데는 매우 세심하고 분별력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⁴⁹⁾ 이것은 신학이 시대정신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의 문제나, 신학이 인식론과 방법론에 있어서 타학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귀한 시사를 얻을 수 있는 주제이다. 또한 종교와 문화의 상호관계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전거가 될 수 있는 역사적 범례이기도 하다.

기독교와 인문주의의 상호관계는 초대 교회 이후 서구 역사의 전 시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⁵⁰⁾ 양자의 관계는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영향관계에 있었던 사상의 현저한 예이다. 그러나 이 양자의 동반관계는 항상 지속된 것은 종교개혁자들은 영적 차원의 개혁을 추구하고 인문주의자들은 도덕적 정신개혁으로서 종교의 개혁을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종교와 문화적 차원의 구별, 신학적 차원과 도덕적 차원의 운동의 식별이 요구되는 일이며, 학문과 사상의 상호관계에서 지적 내용에서만 아니라 사고의 방법이라는 차원에서 각기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영향에 관하여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종교개혁이 인문주의의 영향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 대하여 연구자들 간에 이견이 없으나 서로 이질적이고 상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두 가지, 즉 어느 시대의 기독교 전통보다 철저히 신본주의적 성격을 가진 개혁신앙과 인문주의가 어떻게 동일한 역사적 인물과 역사적 운동 속에 공존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는 의구심을 일으키곤 한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 인문주의와의 상호관련 내지 종합은 그 이후 시대에서는 왜 일어나지 못했는가의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이에 대한 종래의 해석은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 운동들 가운데 북방의 기독교적 인문주의만이 종교개혁에 기여하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북유럽의 르네상스를 지나치게 구별함으로써 전 유럽적인 단일성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북방 르네상스의 성격을 문헌학적 학문운동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종교개혁과 인문주의의 관계는 종교개혁의 교의적 사상 내용에 대한 기여나 영향보다는 정신적 태도의 유사성에서 찾는 것이 마땅하다.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의 유사성을 정신적 태도 면에서 지적한다면 종교개혁의 정신은 지적인 정직성, 인간의 삶에 대한 생생하고 실제적인 관심이다. 같은 신앙상의 문제라 할지라도 천사의 속성 등과 같은 영적 세계에 대한 추상적 호기심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세속적 삶의 맥락 속에서 살며 부딪치는 신앙의 실제 상황에 대한 답을 추구했던 것이다. 죄와 고통, 인간의 한계에 관한 물음들, 인격적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판단하기 어려운 세상 속의 신앙문제 등을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스콜라주의자들이 논리적 추론의 사변에 크게 의지하였던 것과 달리 성서의 계시에만 의존하는 신학원리에 도달하였던 것이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서가 멈추는 곳에서 선다. 성서가 말씀하게 하라 등의 계시의존적 사고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 것은 방법론적 차원에서 스콜라주의에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던 인문주의적 학문 사조의 소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적 내용 종교개혁의 중요한 것은 인문주의적 요소와 개혁자로서의 요소, 이 양자의 다름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고 예비적 과정(변화의 필요를 인식케 하며)을 제공하며 실제 개혁과정을 효과적으로 추진(수사학적 호소력으로서 감동을 제공함) 하게 하는 보완의 관계를 이루었다는 사실이다.

49) 가령 바우스마 인문주의적 관점에서 대단히 탁월한 갈뱅 전기를 산출하였고 그 속에서 종래의 신학전문가들이 발견하지 못한 갈뱅 정신의 독특성을 훌륭하게 그려내었으나 정작 신학적 영역에서의 독특함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비평을 받는다. 예정론, 성경관 등 신학적 영역에서 통상적인 인문주의를 뛰어넘는 면모를 전혀 무시하였다는 것이다. (E.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Eerdmans, 1994)p.263.

그것은 문화적 차원과 종교적 차원이 동일한 평면 위에 있지 않으므로, 인문주의 특히 수사학적 요소를 조명하는 작업에서는 누구라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한계라고 볼 수도 있다.

50) Q.Breen, *Christianity and Humanism*



그리고 루터의 은총교리의 재발견으로 촉발된 종교개혁운동의 과정 속에서 인문주의자들의 다수는 개혁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카피토가 그러한 대표적인 예)

그러나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개념은 다양한 면모와 적용 때문에 아직 모호성을 완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본고의 주제의 핵심을 이루는 칼뱅과 인문주의의 관계 역시 전적으로 인문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의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정면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만 아직까지 연구자들은 오직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맥그래스 R 32, 32갬블 98)

(특히 신학자와 인문주의자의 구별에 관하여는 갬블의 연구사 해설이 보여주듯이 어거스탱이 말하듯이 이방 세계속에서의 요소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보느냐에 달려있다는 주장을 더욱 천착할 것)

종교개혁과 인문주의의 관계는 지속적인 연구가 요청되는 주제이다. 이제까지 종교개혁과 인문주의의 관계가 분명하게 확립되지 못했던 이유는 인문주의 사조 자체의 다면성과 복잡성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르네상스 문화 전반의 경향성과 종교적 함의를 이해하는 가운데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의 관계를 서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종교개혁의 사상적 기원 내지 영향사를 논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맥락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지적 기원의 방법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향사에 있어서 단일한 맥락의 영향관계를 조명하는 주장은 다른 맥락의 주장에 의하여 반박되곤 한다. 주된 예로서, 인문주의가 없었다면 종교개혁의 도래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가 각기 추구하는 인간관과 가치관에서 근본적으로 화합할 수 없는 배타적 이질성이 함유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인간의 능력과 자율성을 신뢰하는 인문주의자들과 인간의 본질적 죄성과 연약함, 신의 섭리에 미이한 의한 역사의 진행을 강조하는 종교개혁가들의 사상은 이념적으로 대립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은 조화의 관계로 주장되기도 하고 불화의 관계로 주장되기도 한다. (박준철 4-5)

따라서 지적인 맥락보다 더 깊고 넓은 시대정신 또는 세계관 차원의 경향성으로써 영향관계가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개혁자들이 의식적으로 뿐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학문과 지적 풍토에서 어떤 영향을 수용하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칼뱅의 신학적 사상이 내포하고 있는 인문주의적 차원에 대한 이해도 인문주의의 모태인 르네상스 문화, 및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가운데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의 관계는 주로 에라스무스로 상징되는 맥락에서 이해되어 왔다. 즉 인문주의는 중세 카톨릭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성서 원전과 교부전통의 재발견을 가능케 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지적 도구로서 여겨져 왔다. (에라스쿠스가 품고 루터가 부화시킨 것이라는 말에서 잘 표현되었듯이) 그러나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의 관계성은 그것으로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인문주의의 학문과 정신자세는 개혁신학자들이 개신교의 새로운 신학체계를 구성함에 있어서 사고틀과 수사학적 신학언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이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칼뱅을 통하여 풍부한 이해가 얻어질 수 있다고 본다.